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서 원 당

사주 감정서

달빛 아래 펼쳐보는 나의 흐름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종 합 사 주

시주	일주	월주	연주
丁未	壬子	壬午	庚午

판매처 서원당 본사 (가상) · 주문일 2026. 10. 31 (가상)

오늘의 나를 깊이 읽는 한 권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1장 여는 장

감정서를 펼치며 — 차례와 읽는 방법

이 장의 질문 이 감정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풀어 주나요?

차례

제1장 · 여는 장 2

감정서를 펼치며 — 차례와 읽는 방법 . . . 2

한눈에 보는 내 사주 . . . 4

내 사주 명식과 계산 기준 . . . 5

제2장 · 성향과 강점 6

나의 본래 기질과 강점 . . . 6

조심할 점과 덜 쓰는 힘 . . . 7

제3장 · 기운의 짜임 8

태어난 계절의 기운 . . . 8

힘의 균형과 뿌리 . . . 9

오행과 십성의 짜임 . . . 10

제4장 · 관계 · 일 · 재물 11

사람과 관계 . . . 11

일과 직업 . . . 12

재물을 대하는 습관 . . . 13

제5장 · 삶의 흐름 14

대운 읽는 법과 대운표 . . . 14

지금의 대운 . . . 16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2026년의 흐름 17

제6장 · 맺는 장 18

정리하며 — 종합 조언 18

이용 안내 19

이 감정서는 타고난 기질과 강점에서 시작해 그런 성향이 나오는 명리 근거를 짚고, 사람과의 관계와 일, 돈을 다루는 습관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열 해 단위의 대운과 해마다 바뀌는 세운으로 삶의 흐름을 읽은 뒤, 생활 속 조언으로 정리합니다. 각 풀이는 명식의 계산 결과에 맞추어 고른 문단이며, 앞날을 정해 두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생활을 돌아보는 데 쓰는 참고 자료입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1장 여는 장

한눈에 보는 내 사주

이 장의 질문 나는 어떤 바탕을 가지고 태어났고, 무엇이 핵심인가요?

> **임수 일간으로 여름에 태어나셨고, 돕는 힘과 쓰는 힘을 합산한 결과는 신약입니다. 일간의 힘을 쓰게 하는 기운이 돕는 기운보다 크게 계산되었다는 뜻으로, 힘을 쓰는 순서와 쉬어 가는 자리가 이 명식을 읽는 바탕이 됩니다.**

이 명식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성의 기운이 두드러지는 한편, 일간의 힘은 신약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재성은 현실적인 성과와 재물을 다루는 의미가 있지만, 그 기운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을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맡고 어디에 힘을 쓰는지가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타고난 기질과 기운의 짜임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1장 여는 장

내 사주 명식과 계산 기준

이 장의 질문 내 사주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시주	일주 (나)	월주	연주
천간 십성	정재	나 (일간)	비견	편인
천간	丁 정 · 화	壬 임 · 수	壬 임 · 수	庚 경 · 금
지지	未 미 · 토	子 자 · 수	午 오 · 화	午 오 · 화
지지 십성	정관	비견	편재	편재
지장간	정 을 기	임 계	병 기 정	병 기 정

오행의 짜임 (겉으로 보이는 글자 수)

목	○ ○ ○ ○	0
화	● ● ● ○	3
토	● ○ ○ ○	1
금	● ○ ○ ○	1
수	● ● ● ○	3

여덟 글자의 겉 오행을 센 것입니다. 이 감정서는 **개수만으로 강약이나 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힘의 균형은 계절 · 자리 · 뿌리를 함께 따져 풀어 드립니다.

명식 읽는 법

1. 가운데 **일주의 윗글자**가 '나' 입니다.
2. 나머지 글자는 나와의 관계에 따라 **십성** 이름을 붙입니다.
3. **지장간**은 땅속에 숨어 있는 기운으로, 뿌리를 볼 때 씁니다.
4. 글자 색은 오행입니다 — 목 · 화 · 토 · 금 · 수.

출생 정보 (가상)
양력 1990. 6. 16
오후 2:30
음력 1990. 5. 24 · 여

연 · 월 기준
입춘으로 해를, 절기로 달을 나눕니다 — 망종 이후 오월

시간 기준
당시 한국 표준시 · 일광절약시간 반영 · 진태양시 보정 안 함

날짜 경계
자정 기준으로 날을 나눕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2장 성향과 강점

나의 본래 기질과 강점

이 장의 질문 나는 어떤 기운을 타고났고, 그 기질은 어떤 힘으로 드러나나요?

임수(壬水)는 넓게 흐르는 큰 강과 바다의 기운입니다. 시야가 넓어 눈앞의 일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그려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그럼 이렇게 묶어 보면 어떨까요" 하고 큰 그림으로 엮어 내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품는 포용력과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는 유연함이 바탕입니다. 반면 생각의 폭이 넓은 만큼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일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인데 힘의 균형이 신약이라,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주변의 흐름에 맞춰 스며드는 적응력과 연결하는 힘이 강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전하고 오해를 풀어 주는 역할을 맡기 쉽고, 그 덕에 일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다만 흐름에 맞추다 보면 내 기운이 쉽게 흩어지니, 하루에 한 번은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2장 성향과 강점

조심할 점과 덜 쓰는 힘

이 장의 질문 같은 장점이 언제 약점이 되고, 평소 덜 쓰는 힘은 무엇인가요?

힘의 균형이 신약인데 내가 다스리는 기운인 재성이 가장 많습니다. 챙겨야 할 일과 돈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내 힘은 아껴 써야 한다는 점이 이 짜임의 핵심입니다. 예산이나 일정처럼 숫자를 맡는 자리에서 꼼꼼함이 빛나는 만큼, 맡은 몫이 늘어날수록 피로도 함께 쌓일 수 있습니다. 일을 더 받기 전에 지금 쥔 일 가운데 넘길 것 하나를 먼저 골라 보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십성을 다섯 무리로 나누어 보면, 그중 한 무리가 겉 글자에 보이지 않습니다 (0개). 그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절로 꺼내 쓰기보다 의식해서 쓰면 좋은 쪽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식상(食傷)은 내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으로, 생각을 말과 글, 결과물로 보여 주는 힘의 상징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드러내는 일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새로 알게 된 것을 혼자 정리하고 끝내기보다 한 번쯤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는 사이 생각이 정리되고, 실력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3장 기운의 짜임

태어난 계절의 기운

이 장의 질문 태어난 달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나요?

앞에서는 이 명식에 담긴 기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질이라도 태어난 계절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명식은 월령의 도움을 직접 받지 못하는 실령에 해당하며, 전체 세력 판단도 신약으로 나옵니다. 이제 태어난 계절과 명식의 다른 기운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나셨지만, 여름의 기운이 나를 곧바로 돕지는 않는 자리입니다 (실령). 바깥은 뜨겁게 움직이는데 나는 그 열기를 견디며 가야 하는 셈이라,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면 쉽게 지칩니다. 바쁜 시기일수록 잠과 식사 같은 기본 리듬을 먼저 지키고, 일정 사이에 숨 돌릴 틈을 미리 넣어 두면 같은 힘으로 훨씬 오래 갑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3장 기운의 짜임

힘의 균형과 뿌리

이 장의 질문 나는 밀고 나가는 편인가요, 받쳐 줄 힘이 필요한 편인가요?

> **힘의 균형은 신약이고, 태어난 달도 나를 곧바로 돕지 않습니다 (실령). 그래도 내가 앉은 일지는 나를 받쳐 줍니다 (득지). 계절의 도움은 적지만 가까운 생활 자리에 기댈 곳이 있는 구조라, 집과 가까운 사람, 익숙한 일상이 이 사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바깥일이 버거운 시기일수록 그 기반을 먼저 지키고,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힘든 점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 힘을 되찾는 길입니다.**

지지에 일간을 받쳐 주는 뿌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뿌리라, 힘이 들 때 기댈 곳이 있으면서도 한곳에 묶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 뿌리는 생활 속에서는 오래 만난 사람, 꾸준히 해 온 일, 몸에 익은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어 가는 것이 힘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3장 기운의 짜임

오행과 십성의 짜임

이 장의 질문 겉으로 드러난 기운과 자주 쓰는 힘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명식 여덟 글자를 겉으로 드러난 오행 그대로 세어 봅니다. 지지 속에 숨은 기운(지장간)은 넣지 않았으니, 여기서의 개수는 힘의 세기가 아니라 '어떤 기운이 겉으로 자주 보이는가'를 알려 주는 생활의 단서로 읽어 주세요.

명식의 겉 글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드러난 오행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개수가 같은 기운을 억지로 하나의 대표 성향으로 정하지 않고, 각각의 상징과 쓰임을 함께 살펴봅니다.

겉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기운으로 화(火)가 보입니다. 화는 밝게 드러나는 불의 기운으로, 표현과 열기의 쓰임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이 생활에 비친다면 생각과 감정이 비교적 빨리 겉으로 나오는 모습일 수 있지요. 분위기를 살리는 힘이 되는 만큼,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한 번 숨을 고른 뒤 꺼내면 같은 열기가 더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겉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기운으로 수(水)가 보입니다. 수는 흐르고 스며드는 물의 기운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모으는 쓰임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이 생활에 비친다면 여러 갈래를 깊이 따져 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길어질 것 같은 고민이라면 처음부터 '언제까지 정한다'는 날짜를 함께 정해 두면 결정으로 이어지기 한결 수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글자에는 목(木)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리에서 목은 새로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며 자라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추진력이 없다거나 새 일을 꺼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에 비추어 본다면, 작은 새 시도 하나를 달력에 정해 두고 해 보는 식으로 시작의 감각을 의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십성의 분포를 세어 보면 재성이 가장 많습니다. 명식 안에서 일간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여러 자리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재성 역시 일간의 힘을 쓰게 하는 기운이라, 이 기운을 얼마나 편하게 다룰 수 있는지는 앞에서 본 힘의 균형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4장 관계 · 일 · 재물

사람과 관계

이 장의 질문 가족과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나요?

앞에서 본 재성의 짜임을 이제 실제 생활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리하고 결과를 챙기는 기운은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는 방식으로, 일에서는 목표와 성과를 다루는 방식으로, 재물에서는 들고 나는 흐름을 살피는 감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운이라도 영역마다 살펴볼 부분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말보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마음을 보여 주는 쪽으로 읽힙니다. 관계의 자리에서 재성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채고 챙기는 감각이 됩니다. 이사를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는 식의 정이 그 모습이지요. 그 마음이 주고받는 셈처럼 비치지 않도록, 가까운 사이에는 아무 계산 없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명리에서 일지(태어난 날의 아래 글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정의 자리로 봅니다. 이 사주는 힘의 균형이 신약이지만 그 자리가 나를 받쳐 줍니다 (득지). 바깥에서 힘을 많이 쓰는 대신 가까운 관계가 쉼터가 되는 구조라, 집이나 믿는 사람 곁에서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질 수 있으니, 받은 만큼 작은 것이라도 돌려주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오래 단단해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지의 기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명식의 일지에는 일간과 같은 계열인 비겁의 기운이 놓여 있습니다. 명리에서는 이를 가까운 관계에서 독립성과 동등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령 가족과 함께 중요한 일을 정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맡기보다 각자의 의견과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물의 기운답게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돌아가는 길을 찾는 쪽입니다. 그 덕에 큰 싸움은 잘 피하지만, 상대는 내가 대화를 피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갈래를 다 생각해 보느라 말할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은 이렇다" 정도는 먼저 전해 두세요. 답은 그다음에 함께 찾으면 됩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4장 관계 · 일 · 재물

일과 직업

이 장의 질문 나는 어떤 방식과 환경에서 일할 때 힘이 나나요?

일에서 재성의 기운은 목표와 결과가 눈에 보일 때 살아납니다. 예산과 일정, 사람과 물자를 따져 배분하고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일이 잘 맞습니다. 직장이라면 관리와 운영, 거래를 다루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꾸린다면 들고 나는 흐름을 꼼꼼히 챙기는 데서 이 감각이 쓰입니다. 숫자로만 일을 보면 사람이 지치기 쉬우니, 성과를 함께 낸 사람에게 공을 나누는 일도 관리의 일부로 여겨 주세요.

일의 속도로 보면, 힘의 균형이 신약이고 태어난 달도 곧바로 돕지는 않아 (실령) 하루에 쓸 수 있는 힘을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회의나 정리처럼 힘이 덜 드는 일을 두는 식으로 하루를 짜면 같은 시간에도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급한 요청이 몰릴 때는 순서를 정해 달라고 먼저 묻는 것도 일하는 기술입니다.

물의 기운에는 정보와 사람이 많이 오가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환경이 잘 맞습니다. 흐름을 읽고 서로를 연결하는 일에서 강점이 살아납니다. 일이 꽉 막혀 고여 있는 듯한 곳이라면 다른 부서나 바깥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통로를 일부러 열어 두세요. 점심 한 끼, 짧은 통화 한 번이 막힌 일을 푸는 실마리가 되곤 합니다.

일간이 양의 기운이라, 앞에 서서 방향을 보여 주고 일을 넓혀 가는 역할에 손이 먼저 갑니다. 새 거래처를 트거나 처음 하는 행사를 맡을 때 오히려 신이 나는 쪽입니다. 다만 앞에서 넓히는 일에 비해 뒷정리는 미뤄지기 쉬우니, 마무리를 챙겨 줄 사람을 곁에 두거나 일정 끝에 정리하는 날을 따로 잡아 두면 넓힌 일이 빈틈없이 완성됩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4장 관계 · 일 · 재물

재물을 대하는 습관

이 장의 질문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데 어떤 습관이 있나요?

재물에서도 앞에서 본 재성과 신약의 짜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재물이나 현실적인 성과는 눈에 잘 띄는 반면, 이를 감당하는 힘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입 기회가 여러 개 보이거나 큰 지출이 겹치는 상황이라면, 모두 잡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 보세요. 돈을 더 벌 방법을 찾는 일만큼이나,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맞는 고정 지출 관리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적은 무리는 식상(食傷)입니다. 식상은 재주를 밖으로 내보내 재물로 이어 주는 앞단의 힘으로 읽습니다. 가진 실력에 비해 그것을 알리는 일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할 줄 아는 일을 주변에 한 번 더 소개하거나 내가 한 일의 값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수입의 통로를 넓히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습관으로 보면, 물의 기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유연한 쪽입니다. 정보에 밝아 좋은 조건을 잘 찾아내지만, 그만큼 여기저기로 조금씩 흘러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구독이나 소액 결제처럼 작은 지출이 모여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석 달에 한 번 자동결제 목록을 확인해 정리하는 습관이 잘 맞습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5장 삶의 흐름

대운 읽는 법과 대운표

이 장의 질문 열 해씩 바뀌는 큰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 장의 간지와 시기는 서원당 명리표준 v1.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표 아래의 생활 풀이는 대운과 세운의 윗글자(천간) 십성을 중심으로 읽은 것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살피는 참고 자료입니다. 정해진 결과를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니, 생활의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살펴 주세요.

대운(大運)은 열 해씩 이어지는 큰 흐름입니다. 태어난 달의 기둥인 월주에서 출발해 한 칸씩 나아가거나 거슬러 가며, 그 방향은 태어난 해의 천간 음양과 성별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첫 대운이 시작되는 나이는 태어난 순간과 가장 가까운 절기 사이의 시간을 '3일을 1년'으로 환산해 구합니다. 원국이 타고난 바탕이라면, 대운은 그 바탕 위로 열 해마다 바뀌어 들어오는 계절과 같습니다.

표의 십성 이름은 1 ~ 4장에서 읽은 다섯 무리로 묶입니다. 비견 · 겁재는 비겁(나와 같은 기운), 식신 · 상관은 식상(내가 내보내는 기운), 편재 · 정재는 재성(내가 다스리는 기운), 편관 · 정관은 관성(나를 다스리는 기운), 편인 · 정인은 인성(나를 돕는 기운)입니다. 같은 무리 안의 두 이름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로 나뉘며, 이 장의 풀이는 무리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이 명식의 일간은 임수입니다.

이 명식은 태어난 해의 천간이 경(양)이고 여성이므로, 대운은 월주 임오에서 한 칸씩 거슬러 갑니다(역행 逆行). 기준이 된 절기는 망종이며, 태어난 순간에서 이 절기까지의 시간을 환산하면 3년 5개월 3일입니다. 그래서 첫 대운 신사(辛巳)는 1993년 11월 무렵 시작하고, 그 뒤로 열 해마다 다음 대운으로 바뀝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대운표 — 열 해씩 바뀌는 큰 흐름

순서	대운	윗글자 십성	아랫글자 십성	시작 시기	
1	辛巳 신사	정인 (인성)	정재 (재성)	만 3세 5개월 · 1993년 11월	
2	庚辰 경진	편인 (인성)	편관 (관성)	만 13세 5개월 · 2003년 11월	
3	己卯 기묘	정관 (관성)	상관 (식상)	만 23세 5개월 · 2013년 11월	
4	戊寅 무인	편관 (관성)	식신 (식상)	만 33세 5개월 · 2023년 11월	지금
5	丁丑 정축	정재 (재성)	정관 (관성)	만 43세 5개월 · 2033년 11월	
6	丙子 병자	편재 (재성)	비견 (비겁)	만 53세 5개월 · 2043년 11월	
7	乙亥 을해	상관 (식상)	겁재 (비겁)	만 63세 5개월 · 2053년 11월	
8	甲戌 갑술	식신 (식상)	편관 (관성)	만 73세 5개월 · 2063년 11월	
9	癸酉 계유	겁재 (비겁)	정인 (인성)	만 83세 5개월 · 2073년 11월	
10	壬申 임신	비견 (비겁)	편인 (인성)	만 93세 5개월 · 2083년 11월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5장 삶의 흐름

지금의 대운

이 장의 질문 지금 지나고 있는 열 해는 어떤 흐름인가요?

202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금은 4번째 대운인 무인(戊寅) 대운에 있습니다. 이 대운은 2023년 11월 무렵 시작해 2033년 11월 무렵까지 이어집니다. 윗글자 무는 토 기운으로 일간에게 편관이 되고, 아랫글자 인은 목 기운으로 식신에 해당합니다.

윗글자가 관성인 대운은 책임과 규칙, 맡은 자리의 무게가 커지는 열 해로 읽습니다. 조직 안의 역할이나 지켜야 할 약속이 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움직일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힘이 되는 시기이지만 혼자 다 짊어지면 쉽게 지치니, 맡을 일과 맡기지 않을 일을 스스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운의 관성은 원국에서 가장 많은 재성과 다른 쪽의 쓰임을 보태는 흐름이라, 두 힘을 어떻게 나누어 쓸지가 이 열 해의 과제로 읽힙니다.

바로 앞의 대운은 기묘(己卯)로, 2013년 11월 무렵부터 2023년 11월 무렵까지였습니다. 윗글자 기는 일간에게 정관(관성)에 해당하여 책임과 맡은 자리의 무게를 익혀 온 흐름으로 읽힙니다. 지금의 대운은 그 흐름을 이어받아, 앞에서 쌓은 것을 새로운 쓰임으로 옮겨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운은 정축(丁丑)으로, 2033년 11월 무렵 시작합니다. 윗글자 정은 일간에게 정재(재성)에 해당하므로 현실을 관리하고 결과를 챙기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5장 삶의 흐름

2026년의 흐름

이 장의 질문 올해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나요?

세운(歲運)은 해마다 바뀌는 한 해의 기운입니다. 서원당 명리표준에 따라 한 해의 경계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立春)으로 봅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초 사이의 날짜는 입춘 전이면 앞 해의 세운에 속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31일이 속한 해부터 다섯 해의 세운을 계산한 것입니다.

세운표 — 해마다 바뀌는 기운 (입춘 기준)

해	세운	윗글자 십성	아랫글자 십성	
2026년	丙午 병오	편재 (재성)	편재 (재성)	지금
2027년	丁未 정미	정재 (재성)	정관 (관성)	
2028년	戊申 무신	편관 (관성)	편인 (인성)	
2029년	己酉 기유	정관 (관성)	정인 (인성)	
2030년	庚戌 경술	편인 (인성)	편관 (관성)	

2026년의 세운은 병오(丙午)입니다. 윗글자 병은 화 기운으로 일간에게 편재가 되고, 아랫글자 오는 화 기운으로 편재에 해당합니다.

윗글자가 재성인 해는 돈과 일의 결과처럼 현실적인 것을 챙길 일이 많아지는 해로 읽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한 번 정리해 두고, 큰 지출은 한 번 더 따져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 해는 지금의 대운 무인(戊寅)의 열 해 가운데 한 해입니다. 대운이 열 해의 큰 방향이라면 세운은 그 안에서 해마다 달라지는 날씨와 같아서, 대운의 관성 흐름 위에 이 해의 재성 기운이 더해지는 것으로 읽습니다.

이어지는 네 해를 윗글자 십성으로 짧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정미(丁未)는 올해와 같은 재성 무리(정재)라 올해의 흐름이 이어지는 쪽으로 읽힙니다. 2028~2029년 무신(戊申) · 기유(己酉)는 편관 · 정관(관성)으로, 책임과 약속을 다지는 해가 이어집니다. 2030년 경술(庚戌)은 편인(인성)으로 배우고 준비하는 해로 읽힙니다.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읽어 주세요.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6장 맺는 장

정리하며 — 종합 조언

이 장의 질문 이 모든 이야기를 생활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관계와 일, 재물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과 삶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식은 전체 힘의 균형은 신약으로 판단되지만, 일지가 일간을 돕는 득지에 해당합니다. 힘을 무작정 많이 쓰는 것보다 자신을 받쳐 주는 조건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보라는 해석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특징 가운데 생활에 적용해 볼 만한 조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약한 힘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 일이나 새 약속을 더하기 전에 지금 가진 것 가운데 내려놓을 것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힘으로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지가 일간을 돕는 득지이니 집과 가까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바쁜 시기에도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이 다음 일을 해낼 힘의 바탕이 됩니다.

셋째, 겉 글자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부족함이 아니라 의식해서 꺼내 쓰면 좋은 쓰임입니다. 이 명식에서는 다음 쓰임을 생활 속에서 가끔 챙겨 보세요.

목(木)은 새로 시작하는 쓰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새 시도 하나를 달력에 적어 두고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흐름에서 본 내용을 앞의 조언과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나는 무인(戊寅) 대운은 윗글자가 관성인 열 해이고, 2026년은 재성 기운이 더해지는 해입니다. 이 열 해에는 맡는 책임이 커지기 쉬우니, 위의 조언을 실천할 때도 맡을 일과 맡기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해 두면 힘이 덜 흩어집니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

제6장 맺는 장

이용 안내

이 장의 질문 이 풀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감정서는 서원당이 미리 준비한 해석문을 계산 결과에 맞춰 구성한 것이며, 특정 상담사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주는 타고난 경향을 읽는 참고 자료이며 건강 · 투자 · 시험 · 결혼 등의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는 사주에 나타난 타고난 경향을 생활 장면에 비추어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결과를 정하지 않으며, 같은 경향도 살아온 환경과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 풀이 하나에 기대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과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살펴 주십시오.

검수 전 견본 — 판매 불가